

SOCIETY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제2 인생 도전”...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 열풍

남구, 반딧불이 축제 개최 20일 대촌천 지식교 인근

광주 남구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존과 환경보호 관심 증대를 위해 오는 20일 대촌천 지식교 인근에서 '제10회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주제는 '반딧불이 빛으로 그린 밤의 이야기'로, 부스 체험과 식전·분무대 행사, 반딧불이 서식지 탐방 등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아이들을 위한 체험활동 시간으로 채워진다. 암실에서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체험을 비롯해 LED를 사용해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탄소 헌터스 놀이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2부 행사에서는 통기타 및 플루트 연주회와 반딧불이 퀴즈 대회를 선보인다. 퀴즈를 맞힌 참가자에게는 반딧불이를 직접 방사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3부 행사는 탐방로 해설사와 함께 반딧불이 서식지인 지식교에서 질석보 구간을 왕복하면서 반딧불이 만남 및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 관측을 즐기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대촌천 반딧불이 생태체험 참가자 모집은 오는 10~11일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접수 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자 모집은 접수 시작과 함께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학력·연령 제한 없어...광주서 매년 60여명 취득 전국 응시자 증가세...“사회적 인지도 향상 원인”

인생 2막에 도전하는 광주지역 중장년층 사이에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2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에서는 2024년 광주지역 주택관리사(보)는 2685명으로, 2020년(2480명) 대비 8.2% 증가하는 등 매년 40~60여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건물과 시설 등의 지중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된 국가자격제다. 공동주택 관리 및 경영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원의 통솔과 업무 지시, 노무관리까지 겸해 관리사무소 소장 및 보조관리 과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대

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증으로 꼽힌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공동주택 수요와 복잡해진 관리 업무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자는 2021년 1만3827명, 2022년 1만4410명, 2023년 1만5225명, 지난해 1만702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다른 자격증과 달리 학력과 연령·경력 제한이 없는 데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가 의무화돼 '다른 직종'과 비교해 안정성이 높다.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유지·보수, 경비 관리, 부대·복합 시설의 유지·안전 관리 등 주택관리 서비스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노인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주민협동 공동체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법률·행정·복지·총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퇴직 공무원, 은행원, 교사 등이 자격시험에 뛰어들고 있다.

협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정책 정보 제공, 교육, 업무 상담 등을 주택관리사에게 제공하며 사회적 지위 향상, 주거환경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동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사무국장은 "주택관리사는 정년 제한이 없어 5060세대에게 매력적인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력을 살려 입주자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유지·운영·생활 관리를 원활하게 이뤄주는 매개체 역할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15~18일 예매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매는 코레일톡 앱과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철도회원만 예매 가능하다.

예매 대상 승차권은 10월 2일~12일 운행하는 열차다.

1인당 최대 1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15~16일은 교통약자(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15일 경부·경전·동해·충북·충부내륙·경북·교외선, 16일 전라·호남·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이 대상이다.

17~19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7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충부내륙·경북·교외선, 18일은 전라·호남·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서해·경춘선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예매 승차권은 18일 오후 5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사전 예매에서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교수가 2일 서구청 들꽃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제122회 서구 아카데미’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북구 골목형상점가 123개소 ‘전국 최다’

내일 전남대 상대 상점가서 선포식...‘금·토 야시장’ 운영도

광주 북구 전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북구에 따르면 4일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북구 전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목적으로,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가 주축하는 ‘금·토 야시장’ 행사와 연계해 추진된다.

선포식은 ‘새로운 시작, 빛나는 골목’을 주제로 4일 오후 5시부터 설죽로202번길 일원에서 골목형 상점가 영상 상영, 전국 최다 지정 선포,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골목 경제 활성화와 실용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골목형 상점가 근거 법령이 마련된 이후 빠르게 움직여 전남대 후문과 황계마을 상권 2곳을 ‘광주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후 지역 내 27개 동마다 1곳 이상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을 목표로 지정 기준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 공동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펼쳤고, 전국 최다인 1만3440점포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선포식 이후 이어질 ‘금·토 야시장’은 전남대 상대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 주최로 마련된다. ‘쌈으로 잇다 맛으로 만나

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8일까지 총 12회 개최된다.

야시장은 광주의 특색 있는 먹거리인 상추튀김을 대표 메뉴로 정하고 상추튀김존, 한식존, 청년존 등 다양한 먹거리 부스 운영과 버스킹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지정된 온라인 채널에 야시장 방문 인증샷과 후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는 리뷰 이벤트도 병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전국 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동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뿌리가 튼튼한 골목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소중한 날엔 나에게 꽃다발을 선물하세요
- 꽃분이 로고는 사랑입니다.

꽃·식물 (꽃다발, 꽃바구니, 꽃박스, 화환)
공간연출 (행사, 포토존, 웨딩연출)
부케드라이 (부케액자, 부케무드등, 부케캔들)
귀피디제 (관살리올라세111)

010. 6411. 7975
m.blog.naver.com/qwer445566 | instagram.com/flower_buni

광주 동구 제봉로 140번길 4

서구,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 ‘온힘’

‘천원국시’ 참여 어르신 152명에 체력·건강 측정

광주 서구는 2일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국시’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52명을 대상으로 체력 및 건강 측정을 진행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일자리 활동의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2주간 매주 월·수·금, 총 6회에 걸쳐 서구 체력인증센터(보건소 4층)에서 체력·건강 측정을 실시한다.

체력 측정은 근기능(상·하지), 유연성, 심폐지구력, 평형성, 협응력 등 6개 항목이다. 건강 측정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 LDL, 골밀도, 체성분 등 8개 항목을 통해 어르신들의 기초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서구는 측정 결과를 개인별로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운동법과 건강관리법을 안내한다.

또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전·후 체성분 변화 데이터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일자리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맞춤형 복지와 건강증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보건소 건강사업과 공공·민간기관 협업을 통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력 측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2023년 국민체력100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